

2021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
우수기업 사례집

2021 Government Rewards
for Sustainable Management



2021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
우수기업 사례집 2021 Government Rewards
for Sustainable Management



2021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

우수기업 사례집 2021 Government Rewards for Sustainable Management



2021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 소개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의 목적

본 포상은 산업발전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기업의 역할 강화 및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이들을 포상·격려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다국적 및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과 및 가치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본 행사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코자 함.

지속가능경영 문화 확산과 수준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성과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 및 기업의 참여를 도모하고 저변 확산의 계기를 마련코자 함.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와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정과제 이행 성과 창출에 참여한 기업의 성과 공시를 독려함으로써 이를 활성화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함.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이 지나온 길

2006년 ‘지속가능경영대상’으로 출발한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이 16회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 제1회 지속가능경영대상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가능경영 우수 실천 기업과 기업인에게 시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국제적 규범화가 가속됨에 따라 2007년부터 정부포상으로 승격되어 시상의 공정성과 권위가 높아졌고, 2008년 제3회 시상에서는 지속가능경영 우수 중소기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에서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이라는 직관적인 명칭으로 변경하여 심사의 공정성 확보와 포상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1년부터는 글로벌 사회책임부문을 통합한 후, 종합ESG부문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부문으로 나누어 포상의 성격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이 기업문화로 정착되고 기업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이 지나온 길



Government Rewards for Sustainable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 및 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참여를 도모하고
 저변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1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 우수기업 사례



대통령 표창	종합ESG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10	
		(주)하나금융지주	12	
국무총리 표창	종합ESG	기아 주식회사	14	
		오씨아이 주식회사	1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종합ESG	(주)KB금융지주	18	
		CJ제일제당(주)	19	
	환경(E)	신한금융그룹	20	
		해양환경공단	21	
	사회(S)	일동제약 주식회사	22	
		한국국토정보공사	23	
	지배구조(G)	중소기업은행	24	
		국민건강보험공단	2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환경(E)	주식회사 청세	26
			부림산기 주식회사	27
		토탈리빙(주)	28	
		지리산한지(유)	29	
		한방유비스(주)	30	
사회(S)		태림산업(주)	31	
		대성기계공업(주)	32	
		휴먼피아코스텍(주)	33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SK텔레콤은 경제적 가치(EV)와 함께 기업 운영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SV)를 경영성과의 중심 축으로 삼는 '더블 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 경영 철학 아래 사회와 함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SK텔레콤은 첨단 ICT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ICT 임팩트를 키우고 있습니다.

친환경 ICT 기업으로 진화

SK텔레콤은 온실가스 저감, 자원 절감 등 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통합(싱글랜 기술)을 비롯하여 고효율 통신장비 개발 및 도입, 사옥 내 냉난방 조절 등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국내 통신분야 최초로 탄소배출권 1,117톤을 인정받았으며,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Net-Zero 달성을 목표로 통신 Infra 장비 저전력화,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적극적인 감축활동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100%)에 가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2020년 환경부, 스타벅스, 행복커넥트 등과 플라스틱컵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한 민관 연합체 '해빗 에코 얼라이

언스'는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는 해피해빗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주 권역 스타벅스 전 매장을 다회용컵 체제로 전환하는 '에코제주 프로젝트'와 서울시청, 을지로, 종로 지역 카페 대상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CT 기반의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ICT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SK텔레콤의 노력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시대에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해 독거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행복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는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제공 중으로, 응급상황 긴급 알림을 통해 154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코로나19 자가격리/능동감시 모니터링 서비스 'NUGU 케어콜', 백신 이상징후 모니터링 서비스 'NUGU 백신 케어콜'은 방역 현장 인력의 업무를 85% 경감시켜 보다 효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출퇴근 이동 지원 서비스 '착한셔틀 모빌리티'는 장애인 이동권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5G 특화 혁신 스타트업 육성, 대학 AI 인재 양성, 장애인 ICT 전문가 육성, 청각장애인 택시 사업인 '고요한 택시' 운영시스템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 사업인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아동 코딩 교실, 경력단절 여성 ICT 강사 취업과정, 어르신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등



ICT 기술/인프라/솔루션의 친환경·사회적 임팩트 확대를 통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는 지속가능 성장 추구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03년 통신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전담 조직을 신설한 SK텔레콤은 상생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ICT 산업 생태계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사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술, 금융, 경영 지원에 주력해온 결과 2013년 동반성장지수평가 최우수 등급을 최초로 획득한 이후 올해까지 9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일과 삶의 균형이 잡힌 일터를 만들기 위해 대기업 최초 전면 재택근무 시행, 근무지 자율 선택 제도 및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환경을 혁신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배구조 건전성 확립 및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실천

SK텔레콤은 투명성/전문성/독립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일하는 이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기존 투자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경영 목표 설정 및 성과 평가,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며, 인사보상위원회는 전문성 높은 이사진을 직접 구성하여 경영 위임 및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 감사를 넘어 윤리 감사 및 자체 경영 진단까지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ESG위원회는 기존 CSR 역할에 더하여 ESG

경영 방향성 및 성과를 관리하고 사업 Infra 관련 ESG 임팩트를 점검합니다.

SK텔레콤은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구성원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이 직접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목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 조직 운영(ESG센터) 및 사업조직 내 ESG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친환경 ICT 기술 개발, 사회안전망 강화 기여, 글로벌 선진 지배구조 체계 확립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새로운 지속가능경영 스토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하나금융지주

2021년은 하나금융그룹의 ESG 경영 원년으로 ESG 중장기 전략 수립

하나금융그룹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룹의 큰 발걸음을 모티브로 한 “Big Step for Tomorrow”라는 ESG 비전 하에서 「2030 & 60」과 「ZERO & ZERO」라는 2가지 추진 목표를 수립하고, 올해 4월 ESG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2021년을 ESG 경영 원년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2030 & 60」은 2030년까지 ESG 금융 6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의미이며, 「ZERO & ZERO」는 2050년까지 사업장 탄소 배출량 ZERO와 석탄 프로젝트 파이낸싱 ZERO를 달성하겠다는 그룹의 약속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러한 ESG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3월 지주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최초로 ‘소비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한편 그룹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2018년부터 1,500억 원 규모의 어린이집 100호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집중 지원, 미혼모 주택 지원 및 취업 교육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혁신 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그룹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하나금융

그룹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를 제정하였습니다. 프레임워크는 그룹의 ESG 중장기 추진 목표를 실천하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산업정책·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ESRM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ESG통합정책 가이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은 적도원칙에 가입 완료하였고, 프로젝트 금융(PF) 등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10대 원칙을 금융 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SG가 사회 전반에 정착할 수 있도록 ESG내재화를 독려하기 위한 금융지원 활동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탄소 경제체제 이행 촉진 및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ESG채권을 발행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에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국내 민간은행 “1호” 친환경 그린론을 주선하면서 은행의 녹색 여신에 대한 선도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이를 발전시켜 지난 4월 은행권 최초로 ‘ESG평가 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ESG평가인증은 ESG평가 업무를 신용평가 회사와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 기관을 통해 인증 받는 것으로,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과 프로젝트는 하나은행 ESG 금융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올해 3월 TCFD지지 선언 이래, 주요 기업여신을 대상으로



진정성 있는 ESG 경영 실천을 통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실현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기후 리스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군을 파악하고 미래탄소비용을 예측한 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 리스크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기후 변화 대응을 금융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해 임직원 및 손님이 함께 참여하는 ESG 캠페인 꾸준히 진행

아울러,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ESG실천 캠페인과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ESG실천 캠페인은 임직원 모두가 환경 문제를 인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사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섯 가지 친환경 미션을 달성하는 ‘하나Green Step 5 캠페인’을 시작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텀블러 “숯블러 캠페인”, 조강하며 쓰레기를 줍는 “줍깅 챌린지”, 의류 자원순환을 위해 분기별로 진행하는 “의류기부 캠페인”, 디지털 탄소발자국 저감을 위한 “하나 사랑지 절약 캠페인” 그리고 “하나 제로-백 챌린지” 등의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수혜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과 함께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하나금융그룹은 코로나 19로 위기를

맞은 국가적 혈액 수급 위기 극복에 동참코자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자폐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기부 마라톤인 “사랑, 하나, 오티즘 레이스”에는 해외 임직원들까지 함께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렇듯 하나금융그룹은 환경(E)과 사회(S) 부분에서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임직원과 손님이 함께하는 ESG 경영 실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금융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고령자, 저소득층이 쉽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개발하여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가치창출활동 촉진을 고도화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자원을 집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그룹의 ESG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와 진정성이 담긴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기아 주식회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경영 추진 중

기아는 2021년 11월 '2045 탄소 중립 전략'을 공개하였으며, 가치사슬 전 단계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목표 등 4개 영역에 대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아는 기후변화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해 예측·관리하고 그 방안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슬로바키아 공장의 경우 2019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만을 100% 사용 중이며, 국내외 전 사업장도 2040년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며 '글로벌 RE100'을 선언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2045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 97%까지 감축하고 적극적인 상쇄 방안을 모색해 자동차의 사용 단계는 물론 공급, 생산, 물류, 폐기 등 가치사슬 전 단계에 순 배출량을 제로('0')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 사업장 중 AutoLand 광명·화성·광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7만 톤으로 2019년 대비 5만 톤 감소하였습니다. 공장 폐수 전량 재사용 등 수자원 사용량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 수자원 사용량은 6,168,016m³으로 전년 대비 6.2% 절감되었으며, 2000년부터 토양 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한 결과 단 한 건의 오염물질 누출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임직원 퇴직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아는 2020년 전 사업장에 걸쳐 409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채용인원 중 58%는 39세 미만인 청년층입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신기술, 신사업 분야 인재를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장년층을 대상으로 '베테랑' 제도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학습 플랫폼인 러닝라운지를 통해 구성원들은 6천여 개 이상의 콘텐츠를 상시 학습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모빌리티 산업 변화 대응을 위해 미래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 5년 전부터 분야별 전문가 강의, 은퇴설계 전문가의 1:1 코칭 등을 제공해 임직원의 체계적인 퇴직 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총 500여 명의 직원들이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선택적 근로 시간제와 같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생활 균형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나아가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공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며, 국적/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아는 2014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래 지속적으로 재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COVID-19 피해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기아는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전세계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아는 2021년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여성 사외이사를



기아,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ESG 추진계획,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한 심의 역할을 추가하고, 최고 경영자(CEO)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전사 지속가능경영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를 의장으로 하는 사내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내부감독을 통한 점검 현황과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에게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투명경영에 대한 사내·외 공정거래 이슈를 공유하여 전사적 공감대를 구축했습니다. 자율준수협의회 소속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소식지 발송,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배포, 정기적인 실태 점검 등을 수행함으로써 내부 감독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공정 거래 실천 의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모든 거래에 경쟁입찰원칙을 도입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쟁사 대상으로는 불공정거래금지, 담합금지, 부정 경쟁 금지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 원칙을 명문화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중심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기아는 전체 탄소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사용 단계에서의 탄소 배출량 최소화를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핵심 선결 과제로 선정하고 중장기 미래전략인 'Plan S'를

기반 전동화 전환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2035년 유럽 시장을 시작으로, 2040년 주요 시장에서도 판매하는 모든 차량을 전동화 차량으로만 구성해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2021년 EV6의 성공적 런칭 후 EV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가며 목적 기반(PBV) 시장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시장을 선도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B2C 영역에서 도심별 환경 규제를 충족하고, 점유형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역량 강화 지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

기아는 2019년부터 3년간 그룹 차원에서 50억 원을 출연하고, 지원규모를 2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확대하여 프로그램을 고도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는 209개사를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180여 개사를 지원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협력사 채용박람회는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고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차, 3차 협력사 포함 284개사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 전용 온라인 상시채용 지원 시스템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그룹사 차원에서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글로벌상생협력센터'를 개원하였습니다. 글로벌 상생협력센터는 자동차 산업 전반의 역량 유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사에서 자체 교육을 필요로 할 경우 교육 시설 및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씨아이 주식회사

친환경 사업 개발 및 '그린사업장' 조성 노력

OCI는 다양한 친환경 사업 개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사용해, 태양광발전소와 연계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GWh급 규모의 보급 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중고 배터리 처리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국내 및 말레이시아 사업장에서 폴리실리콘 생산량을 확대하여, 태양광발전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폴리실리콘 수요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OCI는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전사적으로 전파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환경영향 관리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통한 '그린사업장'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오염 물질 및 수질환경오염물 관리에 있어서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내부기준을 설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굴뚝자동 측정기기(TMS) 설치 확대, 부생가스 활용, 소각로 운전부하 저감 및 운전조건 최적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생산설비의 운전을 최적화하여 전력 사용량을 최소화 하고, 폐열보일러를 설치해 에너지를 재활용하거나, 전력 효율이 높은 신규설비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 사업장이 매년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노력 및 지역사회·장애인 사회공헌 활동

OCI는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공급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 모바일교육 플랫폼 제공, 취업 박람회 지원,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출퇴근 교통수단 제공, 근로자의 날 선물 등 기술·금융·경영에 걸쳐 다방면으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구매시스템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고충 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품 수수 등을 사규로써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OCI는 진정성, 공정성, 지속성, 직원 참여의 4가지 기본 원칙에 기반을 둔 '어려움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의 테마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 공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특히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공장은 5만 원 상당의 마스크 및 손세정제가 담긴 '희망드림 상자'를 150가구에 전달하였으며, 군산공장에서는 총 1,700KG의 김장김치를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160여 세대에 전달하였습니다. 광양공장 임직원은 '사랑의 1004 기금'을 통해 기부금을 모아 광양시가 진행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사업에 기탁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47분께 노인용 보행 보조기를 전달하였습니다.

OCI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OCI 드림'은 단순 일회성 기부



보다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외식업, 사무지원, 사육관리, 문화사업 4개 분야에서 중증 및 경증 장애인을 채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으며, 2019년에는 장애인 클래식 연주단 '드림앙상블'을 창단하였습니다.

ESG위원회 출범 및 확고한 내부 윤리경영 시스템

OCI는 ESG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ESG위원회는 ESG경영 전략 및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회사가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심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배구조, 환경안전, 조세 투명성, 임직원윤리 등과 관련된 강령 및 규정을 제·개정하고 운영현황을 감시·감독할 것이며, 폐기물 및 온실가스 감축, 나아가서는 탄소 중립 등 중장기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를 의결하여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와 정부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OCI는 '인권정책' 및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을 확립하여, 회사 및 임직원이 고객과 주주, 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투명한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이버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부당한 사례의 정황을 발견하거나 사규 위반 행태가 의심되는 경우, 임직원이 직접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감사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및 감사 제안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사규로써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직원 모두가 상생·배려를 바탕으로 마음껏 역량을 뽐내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과의 무료 심리상담 프로그램,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익명 신고 데스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KB금융지주

KB금융그룹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바탕으로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전 영역에 걸친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한 기후변화 전략 고도화(E), 사회를 위한 책임 경영 내재화(S),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확산(G)이라는 3가지 ESG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영역별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KB금융 그룹은 ESG 경영의 실질적인 이행과 확산을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인 ESG위원회를 금융사 최초로 신설하였습니다. ESG 위원회는 그룹의 ESG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관리 및 감독하는 ESG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한 기후변화 전략 고도화

KB금융그룹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정부의 2050 넷제로 이행에 기여하고자 그룹 탄소 중립 전략인 ‘KB Net Zero S.T.A.R.’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룹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내부 배출량은 2040년까지, 자산포트폴리오 배출량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KB금융 그룹의 탄소중립 목표는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과학 기반 시나리오를 근거로 수립되었으며, 탄소 배출 감축 목표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제시·검증하는 기구인 SBT로부터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로서 아시아 지역 최초이자 국내에서는 모든 기업 가운데 첫 번째 사례입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탈석탄 금융 선언’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으며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을 50조 원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Green Leadership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위한 책임 경영 내재화

KB금융그룹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세대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KB금융그룹의 지원을 통해 총 894개 교에 1,446개의 교실이 조성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약 2,500개의 교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5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미소금융은 2015년 은행권 최초로 미소금융 1천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이 외에도 소외계층 대상 다양한 포용금융 상품(수신 및 여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B금융그룹은 여성 인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성 인재 양성 전략인 WE STAR를 수립해 제도, 역량, 균형, 관계 분야별로 여성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인재 양성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확산

KB금융그룹은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위해 사외이사가 경영진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CEO와 분리하여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성장, 기업가치 제고,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 이익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oard Skill Matrix분석을 통해 이사회가 보완해야 할 전문분야 등을 검토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고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특정 이해 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성별, 연령, 국적 등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금융업계 최초로 여성 사외이사 2인이 재임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주)

‘Nature to Nature’ 선순환 체계 달성을 위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 노력

CJ제일제당은 미래 생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원재료 구매,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의 핵심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자연에서 소비자 식탁으로,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는 ‘Nature to Nature’ 선순환 체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지속가능경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구축

CJ제일제당은 지속가능경영의 전략과 방향성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산하에는 ‘지속가능경영 협의체’가 운영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토대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과 관련한 쟁점사항들을 발굴·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회적 리더십 강화

CJ제일제당은 고객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공급망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건강과 영양을 생각한 식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은 물론, 원재료 구매부터 생산·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개선하기 위해 인권경영체계 구축의 본격화에 나섰으며,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을 갖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 목표 및 전략 수립

CJ제일제당은 ‘지속가능한 환경’ 체계를 만들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도입과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추적가능성·투명성을 강화한 원재료 소싱 확대, 플라스틱 저감, 폐기물 순환자원화, White BIO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 솔루션 제공 등 전략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기·중장기 과제 목표 및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동아시아 최초로 금융자산 탄소중립 전략 'Zero Carbon Drive' 선언

신한금융그룹은 작년 11월, 이사회 산하 ESG전략위원회를 열고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진일보한 친환경 전략인 'Zero Carbon Drive' 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과학적 감축목표 기반으로 그 내용은 2040년까지 내부 탄소배출량을 0으로 하고 금융자산 탄소배출량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함께 PCAF(탄소회계금융연합)와 SBTi(과학기반목표)를 가입하면서,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많은 금융 기관들의 탄소중립 선언과 이니셔티브 가입에 대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Zero Carbon Drive를 통해 탄소감축 노력에 그치지 않고 2030년까지 친환경금융 30조 원 계획을 선제적으로 발표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1년 8월말 현재까지 약 4.4조 원의 친환경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UN 협업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으로 글로벌 리더십 발휘

신한금융그룹은 환경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며 국제 표준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2020년에는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글로벌 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Banking 대표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는 CEO인 조용병 회장이 UN과 직접 협업하는 공식 파트너십 기구이자 UNEP FI 최고 경영자 모임인 'Leadership Council'의 멤버로 선정되어 글로벌 금융사 및 단체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예정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주회사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2021년

9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ESG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관련분야 최고의 글로벌 리더와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ESG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2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의 공식 파이낸스 프로그램에 아시아 민간금융사로 유일하게 초청받았으며, CEO인 조용병 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노력을 적극 홍보 하였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관련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국내 최초 가입하며 대한민국 기후금융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TCFD(기후변화 재무 정보 공개)를 국내 최초로 가입하며 국내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탄소중립은행연합(NZBA: Net-Zero Banking Alliance)의 창립기관으로 참여하고, 탄소중립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NZAMI: Net-Zero Asset Management Initiative)에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로 가입, 탄소중립 보험 연합(NZIA: Net-Zero Insurance Initiative)에 국내 보험사 최초로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평가 기관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 국내 금융사 최장 기간인 7년 연속 수상으로 다양한 국제표준을 추진하고 인정받으며 ESG 진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 신한금융그룹 친환경 이니셔티브 가입 현황

	● 국내 최초/업계 최초
● NZIA (탄소중립 보험 연합)	2021년 10월 가입
● NZAMI (탄소중립 자산운용 이니셔티브)	2021년 07월 가입
● NZBA (탄소중립 은행 연합)	2021년 04월 가입
● SBTi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2020년 11월 가입
● PCAF (탄소회계금융협회)	2020년 11월 가입
● Equator Principles (적도원칙)	2020년 9월 가입
● UNEP FI PSI (UN 지속가능보행원칙)	2020년 2월 가입
● UNEP FI PRB (UN 책임은행원칙)	2019년 9월 가입
● TCFD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테스크포스)	2018년 9월 가입
● CDP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국내 금융 최장 7년 수상



해양환경공단

해양의 보전과 이용을 선도하는 해양환경 국민 플랫폼 기관

해양환경공단은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 실행을 지속가능경영 목표로 정하고, 고객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ESG 경영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해양 환경 수호, 사람중심 안전·혁신 경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해양 환경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해양환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

해양환경공단은 2017년부터 갯벌의 탄소 흡수 능력을 산정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을 위한 통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해양환경부문 온실가스 배출 대응 연구활동을 가속화하며 해양분야에서의 온실가스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위기 극복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갯벌복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간척과 산업화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되고 자정능력이 약화된 지역을 우선 복원대상으로 선정 하여 갯벌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온실가스 발생 저감을 위해 친환경 LNG선박을 건조하고 있으며, 항만 대기질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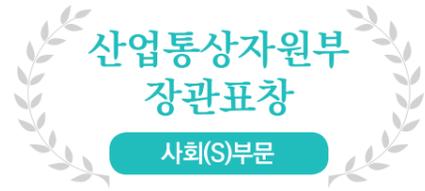
해양환경 오염원 저감

해양에 배출 또는 유입되는 부유쓰레기, 침적폐기물, 오염 퇴적물 등 각종 폐기물과 폐유의 효과적인 수거·처리를 위한 다양한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수심 해역과 같은 순찰 사각지대는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수거 활동을 통해 2020년에는 해양폐기물 총 8,640톤을 수거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약 11% 증가된 수치입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려해변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반려해변제도란 특정 해변을 기업·단체·학교 등이 맡아 자신이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보는 해변입양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제주지역 3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인천, 충남, 경남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13개의 해변을 13개 기관이 반려해변으로 입양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보전인식 증진을 위한 해양환경교육 운영

해양환경공단은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 이동교실, 찾아가는 강사단, 해양환경교육기관 협력사업, 해양환경 진로체험교육 등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교육청, 지역 대학 등 유관기관 과의 협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교육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전국 취약계층 지원 기관과 협업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주식회사

사회적 책임 실천 등 ESG 경영 강화
상생과 협력 · 지속가능 기업 추구

일동제약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초일류 기업'이라는 기업이념 아래 모든 구성원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제약회사의 정체성을 살려 사람들의 건강을 돕고 질병을 치료하는 좋은 의약품과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R&D 투자를 더욱 확대하며 암, 대사 및 신경 질환 등 인류가 직면한 난치성 질병의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 신약 개발에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 바탕으로 다양한 기부·후원·봉사 동참

일동제약은 우리 사회에 소속된 일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부, 후원, 봉사활동 등과 같은 사회적 책임 실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18년째,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하에 급여 일부를 공제하여 사회공헌에 활용하는 '일동 급여공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사 역시 '1대 1 매칭 그랜트' 형식으로 후원에 동참하며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의 장학재단인 '송파재단'은故 윤용구 회장의 유지를 기려 매년 10~20명의 학생들에게 면학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래 27년간 연인원 548명에게 총 30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일동제약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취약계층 건강증진 사업', '김장 나눔 행사', '사랑의 집 고치기 활동'을 비롯해 재해 및 재난 현장에 대한 구호물품 전달 등 각종 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친환경 및 품질 최우선 경영 방침 등 'ESG' 기조 확대

일동제약은 최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주관하는 기업 ESG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유엔 경제 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기구인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협회가 주관하는 '2021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경영지수(UN SDGBI)' 1위 그룹에 선정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경영 방침에 따라, 회사의 생산설비 및 공정에 대하여 환경경영 국제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취득하는 한편,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형태 등을 재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한 '그린 에코(Green Eco) 패키지'를 도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품질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GMP(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엄격한 품질관리 및 지속적인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질 좋은 의약품을 의료·보건 현장에 보급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로 미래를 On하고,
사회를 온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공사의 고유 업(業)인 국토정보를 기반으로 도시·환경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고, 포용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선도

LX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등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 'LX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 사옥 신축·보수 시 신재생설비 구축 확대, 업무용 차량 70% 이상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년도 온실가스 감축량과 CO₂ 발생량은 전년대비 각각 1,338톤, 8.1톤이 추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X는 앞으로도 환경경영종합계획 수립, RE100 가입, 업무용차량 저공해차량으로 전수 교체(~25년)를 통해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등 범국가적 환경정책 이행을 선도하고, 국민과 함께 탄소배출 Zero화 및 탈(脫) 플라스틱 캠페인 추진 등 친환경 문화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국토정보로 사회적 가치 실현

LX는 '한국판뉴딜(20.8.)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교통·에너지·도시계획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재난재해지역 피해면적 조사,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 국토정보 기반의 국민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일자리 창출 5,354개(18~), 상생희망펀드 조성(200억)을 통한 동반성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인권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사회책임경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LX는 앞으로도 디지털트윈, 3D 지하정보 구축 등 고유 업(業)을 기반으로 환경·사회문제 해결,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공정·투명 경영

LX는 내·외부 취약요소 진단을 통해 윤리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청렴문화 확산협의회' 운영, 부패예방체계 개선, 부패 예방 활동(레드휘슬 등) 강화 등 준법경영체계 고도화 및 직원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사건 발생 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대이슈는 'LX리스크관리 위원회'를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 조사에서 LX 최초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LX는 앞으로도 준법 감시(Compliance) 프로그램 도입, 감사활동 전문성 강화, 국민권익대변인 제도 확대 등 준법·윤리·공정·투명 경영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

기본에 충실한 지속가능한 은행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안으로는 신뢰, 시스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밖으로는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 공공기관 최초 ESG위원회 신설

기존 CSR이 사회공헌이라면 ESG는 경영전략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전략기획부 내 전행적인 ESG컨트롤타워인 ESG경영팀을 신설하고 ESG경영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적 관리감독을 통한 바른 경영 실천을 위해 내부 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하여 신뢰성 있는 은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SG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ESG경영 이행 가속화

기존 CSR이 사회공헌이라면 ESG는 경영전략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전략기획부 내 전행적인 ESG컨트롤타워인 ESG경영팀을 신설하고 ESG경영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적 관리감독을 통한 바른 경영 실천을 위해 내부 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하여 신뢰성 있는 은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ESG

IBK기업은행은 건전한 지배구조를 시작으로 은행 자체적인 ESG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넘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임직원 교육, 캠페인 등으로 내재화를 추진하고 ESG경영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전행적인 성과관리지표(KPI)를 도입하여 IBK기업은행만의 ESG경영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UNGC, UNEP FI, PCAF, SBTi 가입, UN PRB, TCFD지지 선언, CDP참여 등 다양한 외부 네트워크에도 참여하여 ESG경영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와 IBK기업은행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교육을 실시하고, 금융기관 최초로 중소기업 ESG진단과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중소기업 ESG경영 확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목표와 기관장 성과지표 연계·강화를 통한 ESG경영 적극적 추진

공단은 기관장 경영계약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대내외 경영 환경 분석과 이사장 경영방침을 연계하여 공단의 성과창출이 극대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의 주요 성과는 보장성 강화, 안정적인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등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이 주요한 내용으로, 이사장의 의지와 기관 성과가 모두 ESG 경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재임기간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으며, 건강보험 국민 인식조사 결과 역대 최고 국민신뢰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율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이사회 역할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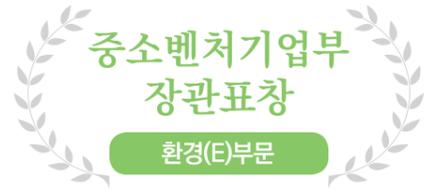
공단은 이사회를 운영하고, 이사회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이사회 운영체계를 고도화 하고 있으며, 비상임이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임 비상임이사에 교육을 진행하고, 사업 수립 초기단계부터 비상임이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4개그룹, 11개분야로 세분하여 자문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 경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형 경영활동에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창립 이후 최초로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는 등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청렴 공단 구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체계 수립

공단은 지속가능한 윤리경영체계 수립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실천으로 최고 수준의 청렴공단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공단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중심형 윤리경영 체계를 만들고, 청렴문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미진사항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윤리경영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패발생 위험업무 진단 및 개선

공단은 조직진단 및 부패리스크 평가를 통하여 부패방지경영 시스템(ISO 37001) 구축 및 국제인증 취득하여, 공단 윤리경영체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공단 업무 중 부패 유발 가능한 업무를 선정하여, 업무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공단은 청렴도 6년연속 최상위 기관 달성과 부패방지시책 평가 1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청세



주식회사 청세

주식회사 청세, 친환경 세탁서비스 브랜드 '청춘세탁'은 드라이 클리닝의 대체 공법인 워터클리닝 공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워터클리닝이란, 100% 물과 특수세제로 세탁하는 공법으로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는 의류를 물로 세탁하는 공법입니다. 그리고, H/W와 S/W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24시간 365일 세탁물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 무인 로봇 세탁함도 제작하여 무인·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년간 사용된 기름세탁인 드라이클리닝을 대체 할 수 있는 친환경 워터클리닝 공법

드라이클리닝은 배수 기능이 없어 기름을 수백 번 재사용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클리닝으로 세탁한 의류는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라는 물질을 방출하는데, VOCs는 피부질환, 신경계질환, 불임, 암 등 인체에 중증질환을 유발하고 지구 온난화,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미국,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드라이클리닝은 점진적으로 규제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개발·제조·생산하고 있는 특수 세제를 사용하는 워터클리닝 공법을 개발하였고, 의류의 변형, 뒤틀림 등이 없는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인 로봇 세탁함 기반의 24시간 365일 무인·비대면 세탁서비스 제공

세탁소의 한정적인 영업시간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비대면 트렌드를 수용하여 24시간 365일 언제나 세탁물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 무인 로봇 세탁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탁업의 터닝포인트를 제시하는 기업

일반적으로 전국 3만개의 세탁소는 한정적인 시간에 대면 으로만 세탁물을 맡기고 찾을 수 있어서 1인가구, 맞벌이 부부 등은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24시간 세탁물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속적 R&D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신제품의 개발, 기존제품의 품질향상, 원가절감의 실현 등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워터클리닝 공법의 고도화와 환경보호를 위해 높은 생분해도 테스트와 임상실험 등 사람과 환경에 안전한 특수세제를 개발 중이며, 서비스품질의 향상과 균질의 서비스를 위해 매뉴얼을 구축해 시행·보완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의 경영

사람 중심이라는 기업 이념아래 모든 임직원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 하여 노사관계를 원만히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역량강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주기적인 인력개발 및 훈련을 시행 하고 있고,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내일채움 공제와 스톡옵션 등의 성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림산기 주식회사

재활용이 힘든 질 낮은 폐유리를 자원 순환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여주는 고부가가치 건축소재를 생산하는 친환경 기업

부림산기 주식회사는 1998년부터 알루미늄 재생을 위한 합금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2016년 김해공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발포유리 내·외장재 사업을 시작하여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함과 더불어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관련 제품인 PiN Foam의 제품화에 성공하였으며, 20년 넘게 이어온 플랜트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설비를 직접 제작 및 설치함으로써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규모의 발포 유리 제품 양산 공장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폐유리를 90% 이상 사용하는 고효율 자원순환 제품

부림산기 주식회사의 PiN Foam 제품은 재활용 유리를 주원료 (90%이상)로 활용하여 만든 다공성 불연, 단열 내·외장재 입니다. 늘어나는 폐기물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유리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의 건축자재를 만들어 냅니다. 제품의 주요 특성으로는 친환경성 (폐유리가 주원료로 폐자원 재활용), 불연성(주원료가 유리 라서 불에 타지 않음), 단열성, 경량성(유리를 발포하여 만들어 80%이상 독립공기 열전달을 차단하고 가벼움), 시공성 (얇은 유리셀로 구성되어 쉽게 절단되고 시공성이 좋음), 안정성(유리의 낮은 팽창계수 때문에 뒤틀림 없고 화학적으로 안정된 상태), 흡음, 내해동성, 내수성, 내압축성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반영구적인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친환경 기업

또한 본 제품은 불연, 단열, 경량, 내수/내산성 등의 우수한 물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건축물의 화재 예방, 냉난방 에너지 절약, 건축물의 하중감량과 같은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여 얻을 수 있는 석재나 화재에 취약한 EPS 단열재와 같은 자재를 대체함으로써 자연을 보호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해결되지 못하거나 새롭게 생겨날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R&D 노력

화력 발전시 발생하는 폐기물인 Ash(재)를 재활용하기 위해 당사 발포 유리 제조 시 Ash를 발포제로 적용하는 기술을 이미 개발 완료하여 특허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에 활용된 패널의 사용 기한(약 20년 이상)이 곧 도래하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 철거시 막대한 양의 폐유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의 R&D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탈리빙(주)

2013년부터 음식물처리기 연구개발, 제조, 판매, 설치, A/S 본사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 중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과 관공서, 학교, 군부대, 대규모의 구내식당 등에서부터 소규모의 음식점까지 다양한 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직접적으로 절감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과 기업의 경영혁신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및 경영혁신기업 확인을 받았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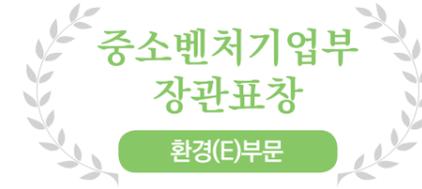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및 노력

당사는 ISO 14001 : 2015 환경경영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 경영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끊임없는 공정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원재료, 에너지 발생량을 모니터링하여 지속 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매출액 대비 발생량을 전년대비 57%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2020년도 중소기업부에서 주관한 CSR 코칭 및 자문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도 경기도 CSR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지원 및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임직원 행복지수 제고

당사는 '직원들이 먼저 행복하여, 고객들에게 행복을 나누자' 라는 대표자의 신념에 따라, 임직원에 행복 지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휴가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임직원에게 휴가비 지원을 통해 근무의욕을 촉진하고 있으며, 사기 진작 차원에서 회식비, 경조사비 등을 수시로 지원하여 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자 매년 교육을 시행하고 고충처리함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윤리 규정을 수립하여 청렴한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리산한지(유)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지리산한지(유)는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전통 한지의 개량과 보급에 힘쓰며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신뢰와 창조”라는 사훈 아래 전세계 두번째로 한지사를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으로 배터리용 도포지, 전사지, 세라믹종이, 활성탄종이 등 다양한 특수지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열정

세계 두번째로 개발한 한지사는 한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친환경 섬유패션소재로 의류 및 침장류, 벽지, 위생용품까지 다양한 방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지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식물을 활용한 쇼핑백 손잡이, 필터 등 다양한 환경친화적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및 기후변화대응

환경과 인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지리산한지(유)는 ISO14001을 인증받고 환경경영을 실천하며 자연친화적 시스템 구축, 자원 및 에너지 절약,수질개선등 지구 온난화 문제 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고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폐수를 공정별 특성에 맞게 분류

후 자체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된 폐수는 다시 폐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재처리 후 방류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고농도 폐수의 경우 별도 수집하여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의 사내 배출허용 기준으로 법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사태를 대비한 집수조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원을 감축하기 위해 화목 원료의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기존의 벙커씨유 보일러를 새로운 대체 원료인 천연 가스를 사용하는 LPG보일러로 교체하였으며,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기존 배출방지시설에 여과집진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자원사용량을 줄이며 상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 속 재활용, 절약운동

지리산한지(유)는 1회 용품을 줄이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전 직원의 개인컵 사용을 권장 함으로써 절약 습관이 정착되도록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심 시간 및 외부 출장 시 냉/난방기기, 컴퓨터 전원 및 모니터 끄기, 이면지 활용하기 등 에너지 절감 및 자원 절약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방유비스(주)

국민에게 안전을 위한 한방유비스(주) 사회적 가치 실현

한방유비스(주)는 전쟁 이후 소방의 불모지였던, 국내에 소방이란 단어조차 생소하게 느끼었던 1947년에 국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이루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국민과 기업과 사회가 더불어 안전하게 서로 상생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소방분야 선구자로서의 소방을 선도하는 미션 수행을 위해 국·외 최신 소방기술 도입과 국내의 소방시설을 자체 개발했으며, 사명과 시대적 요구를 놓치지 않고 선도하여 발전시켜오으로써, 국민과 이해관계자와 함께 더불어 지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1947년부터 소방의 선구자로서 활동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노력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정과 함께 '2020년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변화와 혁신으로 사회에 지속적으로 공헌하는 한방유비스로 멈추지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녹색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경영 전략 및 정책

한방유비스는 국내 법규 및 국제 환경 협약을 근간으로 사내 기준 및 절차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분야 전담 부서인 환경관리팀을 운영으로 ISO 14001(환경경영) 인증을 취득하였고,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 간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전략과 정책을 주시하고 방침부터 매뉴얼 및 절차서를 구체화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내·외부 심사와 자체 점검을 통한 성과분석으로 향후 계획 수립, 목표관리 와 자원의 관리 운용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하여 정기적인 관리,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사용 감축을 위한 활동과 환경 이슈에 대하여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미래는 임직원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미래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준비함으로 만들어진다”는 마인드로 여성 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산전후 휴가 제도 및 여직원 전용 휴게시설 등을 운영하여 사회의 시적인 가정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재충전과 창의적인 기업 문화 형성을 위해 정기적인 워크숍 및 콘도 운영 등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임직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건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는 기술력 있는 인재가 결정된다”라는 철학으로 NCS 기업으로 참여,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비를 지원 등 회사와 직원이 함께 기술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과 장학금 수여, 한국 화재소방학회 남헌상 기부 등으로 소방의 선구자로서의 자부심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 확대 및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WIN-WIN 하며 국민에게 안전을, 임직원에게는 상생을, 사회에 위치를 생각한 책임과 공헌하며,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용 환경을 고려한 안전에 적합한 감전, 화재, 상해 등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와 비정상적인 것들을 평가하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태림산업(주)

태림산업(주)은 자동차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향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서, 30년 동안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에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동료의 안전/자신의 안전을 모토로 회사 운영방침 전반에 대한 안전 철학 수립과 조직구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고용과 인사에 평등을 추구하고, 개방형혁신 전략을 통해 공급망 내외의 협력과 상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스마트공장

현재 기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차량으로 자동차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였고,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식으로 조향 장치 트렌드가 변화 되었습니다. 당사에서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 로봇, AI로 무장된 첨단시설'이 아닌 '데이터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공장'으로 과거 경영자나 숙련자의 감으로 의사결정을 하던 것을, 데이터를 통해 좀 더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장기적 체질개선과 경쟁력향상을 통한 물량 확보와 전세계 고객들의 요구수준을 맞추기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적정 기술들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사내동호회 활성화 등에 따른 사내 만족도 유지를 통한 고용 유지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규 아이템 개발 및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따른 신규 시스템 도입을 통한 분야별(AI, Big data, etc.) 신규 전문 기술 인력 고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방형혁신전략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상생 발전 기여

자동차 부품에 대한 안전, 품질 확보 요구 증가에 따른 스마트 공장 추진 가속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정밀 진단 및 지원을 통해 스마트 공장 고도화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투자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Use Case (적정기술)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바탕으로 모델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전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중소 K-스마트등대 공장 모델로서의 Best Practice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다수 기업들의 벤치마킹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대성기계공업(주)

사회공헌 경영

당사의 제품은 고기능성의 중요제품을 생산하는 장비로서 대기업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는 특수장비 분야이며, 이러한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오랜경험과 축적된 기술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연구개발능력이 요하는 업종입니다. 판매와 수출 측면에서 내수부분의 제품 고도화와 녹색 성장에 편승이 가능하며 해외시장에서는 독일, 일본업체와 경쟁관계에 있으니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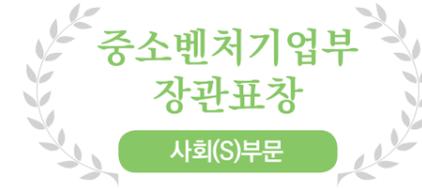
경제적 가치 창출

국가 경제발전에 따라 분체, 입체 제조 공정용 플랜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특수 목적용 공정기계류를 한국 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 자립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정밀화학, 제철, 식품분야의 수입기계류를 국산화하여 원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 목적용 플랜트의 국산화에 주력하여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자체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연구원 및 엔지니어 육성에 전력을 다하여 우리나라 특수목적용 플랜트 산업의 기술력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전세계 15개국 이상에 제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수입대체를 이루었으며 생산공정 개선과 자동화로 생산설비 기술력을 향상시켜 경영이익 창출은 물론 생산기술 선진화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고급인력 유치, 성과급 지급 및 기숙사제공 등 임직원에게 최상의 업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산능률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상거래 100% 현금지급을 유지하고있으며, 사내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출증대 및 정기적 사회기부를 통해 지역사회발전 및 소외계층지원 출산 및 육아 휴직, 복직장려, 복직 후 차별없는 대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휴먼피아코스텍(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휴먼피아코스텍(주)는 마스크팩, 수분크림, 핸드크림 등 기초화장품을 제조 생산하고 샴푸, 린스, 바디워시, 여성세정제 등의 바디제품을 제조 생산합니다. 자체브랜드로 LUS, 데이 라이트 & 휴, 인샘 등의 브랜드로 생산 수출하고 있으며 OEM 생산하여 수출, 납품하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수출부문은 에과도르, 페루, 스페인, 코스타리카, 베트남, 일본, 터키 등의 나라에 고정바이어를 확보하여 마스크팩, 수분크림, 세니타이저겔 등을 자사브랜드,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팩 하나면 피부고민 끝! 이라는 신념으로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마스크팩 제조 시 가장 중요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어 피부 트러블 없는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화장품을 위해 끈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만큼 위생과 품질관리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한류 타고 해외에서 큰 호응, 세계로 나가기 위한 날갯짓

효율적 생산관리를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와 우량 바이어 확보 뿐만 아니라 최근 OEM 생산은 다양한 원료소재를 함유한 제품과 제품의 다양성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과 발전된 디자인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사는 기존 바이어와의 관계유지 및 새로운 거래처의 개발, 우수 바이어 발굴과 함께



기술력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이후 산업재해율 0%

2009년도 회사 설립 이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재해율 0%를 달성하였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산업 안전 보건법에 맞춘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해 재해 없는 회사로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삶을 지원한다는 생각으로 직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피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라북도혁신성장 R&D+사업으로 복분자씨앗 추출물을 활용한 기초화장품 개발하였고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아로니아를 활용한 발효스킨케어 제품 개발 및 효능 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연구와 배움으로 신제품을 계속 연구 출시중이며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제품의 개발로 인해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이 상승함과 동시에 기업의 가치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컨셉이 새로 우먼서도 사용하기에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우리 회사의 연구진은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시상부문 및 심의방법

시상부문 및 내역

훈격	규모	부문	
대통령 표창	2점	종합ESG부문	2점
국무총리 표창	2점	종합ESG부문	2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8점	종합ESG부문	2점
		환경(E)부문	2점
		사회(S)부문	2점
		지배구조(G)부문	2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8점	환경(E)부문	4점
		사회(S)부문	4점
합계	20점		

심의방법

2021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수상 기업은 서류심사 및 공적심의, 공개 검증의 과정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서류심사는 기업이 제출한 공적조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이후 후보 기업의 추가 공적 및 사회적 물의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관련 언론 이슈와 형사처분 여부 등을 리뷰하는 공적 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종심의를 서류심사와 1차 공적심의를 결과를 종합하여 후보 기업의 적격성을 검토한 후 최종 추천 후보를 결정하였습니다.